

# 항암효과 '셀포라판', 양배추·무·무순에 풍부

### 농진청, 한국인 섭취 농식품 대상 기능 성분 소개

2026년까지 우리 농식품 550점 대상으로 셀포라판 포함 식이화학물질 정보 구축 계획... 맞춤형 건강 식단 등에 활용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4개 연구기관과 함께 케이(K)-농식품자원의 특수기능 성분 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농식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능 성분 함량 등 정밀 정보(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항암효과가 뛰어난 식이화학물질인 '셀포라판'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항암식품으로 꼽히는 브로콜리에는 '셀포라판'이라는 식이화

합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 셀포라판은 브로콜리를 비롯해 배추, 양배추, 무, 콜라비 등 십자화과 채소에 풍부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인동대 학교와 함께 셀포라판이 풍부한 십자화과 농산물을 탐색하고, 관련 정보를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을 바로'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셀포라판은 십자화과 채소 속 글루코라피닌이라는 물질이 수확 후 보관 또는 조리 및 가공 과정을 거치며 분해해 생성된다. 국내외 연구 결과, 셀포라판은 유방암, 전립선암에서 특이적으로 세포 사멸을 유도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같은 질환에서 뇌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연구진이 십자화과 농산물에 들어 있는 셀포라판 함량을 정밀하게 측정 한 결과, 양배추에는 4.33mg, 무에는 5.17mg, 무순에는 9.79mg이 함유돼 있었다. 양배추의 경우, 방울양배추(3.64mg)보다 셀포라판 함량이 약 20% 많았다.

양배추, 무, 무순 모두에 셀포라판 함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브로콜리(2.07mg)보다 2.1~4.7배 많은 양이 들어 있었다.

한편,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냉동 브로콜리 제품은 7.23mg으로 생브로콜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게재했다. 또한, 2026년까지 우리 농식품 550점의 식이화학물질 정보를 구축하고 '농식품을 바로'에서 셀포라판을 포함한 다양한 식이화학물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셀포라판을 포함한 식이화학물질은 품종, 재배, 저장, 가공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라며, "품질 육성, 맞춤형 건강 식단 개발, 관련 식품 가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에 함유된 식이화학물질 기초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농협경제지주, 전북농협은 금안농협·희창물산과 함께 김제 지평선 신동진 쌀을 미국·캐나다·영국 등에 수출하는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김제 신동진쌀, 미국·캐나다·영국 수출 선적

### 전북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수출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박서홍),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금안농협(조합장 최승운)·희창물산(주)대표 권중천과 함께 김제 지평선 신동진 쌀을 미국·캐나다·영국 등에 수출하는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정부에서 쌀 5만톤 추가 매입과 더불어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양질의 전북 신동진 쌀을 적극 수출함으로써 쌀값 안정을 지지하고 농민 소득 증대에 앞장서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전북농협은 금안농협 쌀 수출을 필두로 김제와 군산 부안의 고품질 쌀을 세계인이 아침밥으로 맛

볼 수 있도록 적극 수출에 앞설 것이며 향후 1,100여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 농협경제지주의 쌀 소비촉진계획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지역농협이 쌀값 저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다.

금안농협 최승운 조합장은 "드넓은 김제평야의 고품질 김제지평선 신동진쌀을 미국·캐나다·영국 등의 소비자들에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아침 밥심! 전북 쌀심!을 통해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적극 계진하고 있으며 곡창지대의 우수한 김제지평선 신동진 쌀을 세계인의 아침밥까지 책임지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 전북은행, 본점 '화재대피 다수 사상자 처리훈련'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화재 시 대처능력 숙달을 위한 본점 화재대피 및 다수 사상자 처리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을지연습 일환으로 지난 21일 본점에서 시행한 이번 화재대피훈련은 전북은행 임직원 및 직장민방위대 임주사가 참여했으며 화재발생 전파 및 신고 비상계단을 이용한 신속한 대피 등 화재 발생 시 고객 및 직원의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화 및 긴급복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직장민방위대원을 활용한 자체 의료구조 및 구호대를 편성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 훈련까지 실시했다.

박성훈 부행장은 "화재대피훈련을 '살마하는 생각보다는' 실제상황에 직면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실천적인 행동으로 숙달하여야 하며, 가끔적 많은 인원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을지연습은 국가 재난 및 비상사태 시 대응 및 위기관리 전시 전환 절차 훈련 등을 위하여 전 기관 및 중점관리업체가 실시하는 훈련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정부주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매년 덕진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및 자체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본격추진

### 전개공, 9월부터 순창 동계면 구미리서 입실 덕치면 천담리까지 총 길이 7.3km, 폭 8.0m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9월부터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서 입실군 덕치면 천담리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7.3km, 폭 8.0m의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설도로는 섬진강 장군목 유원지와 용골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이 지역을 지나는 도로는 폭이 3.0미터에서 4.0미터에 불과해 매우 협소하며, 도로 일부 구간이 장마철, 특히 섬진강변 방류 시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8년 6월 전북개발공사가 순창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 상반기에 문화재 발굴조사완료, 토지보상, 사후환경영향

조사 등을 진행하여 공사추진 환경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2027년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관광객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처 관계자는 "공사기간동안 방목객 및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사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온고을신희, '자산 1000억원' 달성... 기념패 전달

신희중앙회 전북분부는 전주 온고을신희에 자산 1000억원(2024년 7월 말 기준) 달성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연수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노원택 이사장, 이연복 전무를 포함한 온고을신희 임직원 8명이 참석했다.

온고을신희는 1981년 전주시내 의약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송원신희이 모체다. 2002년에는 단체 신희에서 지역 신희으로 공동유대를 확대



했다. 이후 2014년 온고을신희으로 조합 명칭을 변경하고 2018년 2월 노 이사장 취임 이후 370억 규모의 자산을 달성

한 데 이어 올해 7월 말 자산 1000억원을 기록했다.

노 이사장은 "자산 1000억원 달성은 조합원의 신뢰와 지역 주민의 관심 그리고 온고을신희 임직원의 노고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처음 마음가짐을 잊지 않는, 더 큰 사랑으로 보은하는 모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고을신희는 '가져·같이' 전북신희 경영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연탄 및 난방·방한용품 전달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중기중앙회 첫 방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상례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규제 과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 등 노동개혁에 앞장선 전문가"라며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경제적 주5일 2시간 개선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라며 "고급리, 내수부진과 과도한 노동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적 대화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핵심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AI 등의 기술혁신에서 비롯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